

그리스도인 26. 그리스도인은 성령침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다.

Christian 26. A Christian is a person who has been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nd can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1. 성령침례

성경기록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소개된다. 그 중에 누가복음 3장이 말하는 세가지 침례에 대해 살펴보자.

요한이 응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르되,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하신 한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성령님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¹⁷곧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렸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곡식 창고에 들이시되, 껍질은 그분께서 켤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더라.(눅 3:16-17)

위 구절들에는 세 가지 침례가 소개된다.

첫째는 물 침례다. 물 침례는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주었던 것처럼 한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다. 오늘날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때 이 물 침례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마 29:19)

물론 요한의 물 침례는 구약적 개념에서 죄들을 자백하고 자기들도 이방인들 못지않게 악하다고 인정하면서 받는 침례다. 회개의 침례(the baptism of repentance, 눅 3:3)라 할 수 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주는 물 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침례(행 8:37)로 그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행 19:3)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행 19:5).

둘째는 성령침례다. 성령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됨을 믿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님에게 잠겨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님에게 잠기는 이 성령침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셋째는 불 침례다. 불 침례는 믿지 않는 자가 불속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불 침례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죄인들이 죽음 이후 결국 불로

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 죄인들은 불 속에 잠겨 영원히 고통 받게 될 것이다.

2. 성령충만

성령침례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에게만 누려지는 일이다.

성경기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한다(엡 5:18).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득세한다. 교만하게 된다. 이기심의 영향을 받는다. 파당을 형성한다. 열매도 없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아버지는 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며 심지어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더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할 수 있고(엡 3:19) 성령님이 하나님이사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올바른 기도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 친절, 신실하심을 믿는 표현이다. 기도를 통해 자꾸만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3. 성령침례와 성령충만의 비교

성령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성령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성령침례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고 성령충만은 일부 신자에게만 주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꾸만 성령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침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침례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성령침례는 한 번 받으면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다. 성령침례는 결과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며 성령충만은 결과적으로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령침례는 주님의 승천 후 첫 번째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고 성령충만은 그 전에도 있었다. 예컨대 사가라의 가족,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었다.

성령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이 없으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한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도록 내 마음이 기꺼이 허락할 때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침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 충만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침례	성령충만
단회적	반복적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관계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계됨
모든 신자에게 주어짐	일부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음
잃어버릴 수 없음	잃어버릴 수 있음
신분(Position)에 영향을 주는 것	능력(Power)에 영향을 주는 것